

하나금융그룹 서귀포 ‘공립 별빛하나어린이집’ 개원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김태엽 제주 서귀포시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지난 10월 1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 개원식을 했다고 밝혔다.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은 제주도에 최초로 건립된 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내 감귤밭과 삼나무길, 유채꽃과 억새밭을 품은 ‘바람모루공원’ 안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 환경과 시설을 갖춰 문을 열었다.

연면적 597㎡의 공간에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한 램프길 설치를 비롯해, 치료실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실, 전용 교구가 비치된 언어치료실 등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이 마련됐다.

또 경력 5년 이상의 언어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 특수교사 등 장애아동 전문가를 채용,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위원회 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태엽 제주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개원을 축하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개원식 행사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15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어린이집에 기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위원회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마련된 제주도 최초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이번 어린이집 개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이번 제주도 어린이집을 포함, 총 2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또 명동, 여의도, 부산, 광주, 성수동에 5개의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총 26개 어린이집의 문을 열었다.

이밖에 현재 총 70여 지역에서 어린이집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0개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❶